



3면 저탄소 KTX 탑승으로 새해 첫 경제행보 시동

전주매일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음 11월 22일) 제269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道,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2021~23년 세부계획 담아
기술혁신 거점 키우기 위한
공동인프라 구축에 기반 강화
특화 전문기업 집중 육성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소성
가공·열처리 등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업산업인 뿌리산업을
전북도가 집중 육성해 나간다.

전북도는 뿌리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
한 '제3차(2021~2023) 전북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은 전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3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종합발전계획 안에는 기술혁신
과 기업맞춤형 지원으로 전문화된 전
북 뿌리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의 산업
현황 분석 및 기존 종합계획의 성과,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향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부계획을 담았다.

전북도는 뿌리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단계별 육성, 기
업환경 조성 등 3대축으로 발전시킬 전
망이다.

기존 영세하고 노후화된 뿌리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거점육
성을 위한 공동인프라를 구축하고, 자
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뿌리산업 정책 연계 단
계별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
다.

또한, 열악한 뿌리산업 작업환경개
선을 통한 인식제고와 숙련기술 인력 양
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근로환경 및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뿌리 특화



'힘내자, 전북' 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1 신축년 비대면 시무식에 송하진 도지사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의지를 다지는 희망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3대 핵심 전략 실행을 위해 인
프라 구축 분야 4개 과제, 단계별 성
장지원 분야 14개 과제, 환경개선 및
인력양성 분야 4개 과제, 총 20개 과
제를 중점 추진해 전북 뿌리산업 성장
생태계를 단단히 구축해 나간다는 방
침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뿌리산업 기
술혁신 거점육성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 2식 ▲뿌리기업 확산서 발급기업
250개사, 뿌리기술 전문기업 육성 43
개사 ▲공정개선·자동화 30건, 핵심
역량 기술 개발 60건 ▲수출기업 육성
88개사, 수출액 500만불 이상 6개사 창

출 ▲작업환경개선 75개사, 일자리 창
출 600개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발전계획을 토대로, 그동안
부족한 전북 뿌리산업의 기반 구축과
더불어, 영세성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
해 납품기업에 의존하던 기업에서 벗
어나 자체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
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열악한 작업환경의 지속적인
개선지원을 통해 일하고 싶은 근로환
경을 조성, 3D업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숙련기술인 양성, 명인 선정 등 자
공심 고취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생
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승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 속에
도내 뿌리기업이 굳건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추진
해 도내 뿌리산업의 양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 도모할 수 있
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약 490여 개의
뿌리기업이 있으며, 지역별로 군산
25.9%, 익산 15.7%, 김제 14.3% 순으
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에
주력산업과 더불어 집중돼 있다.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
장이 많고, 영세한 기반 등으로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업보
다는 대부분 납품기업에 의존도가 높
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호상 기자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실현

2021학년
도부터 고
등학교 무
상 교육 이
전 학년으
로 확대 실
시된다. 이
에 따라 학
생 1인당
약 110만원의 수업료 해
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운영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지원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
도교육청 "교육의 공공성 강화할 것"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2~3학년에 적용되던 무상교육을
올해부터 1학년까지 확대 운영한
다고 밝혔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
립학교는 제외된다.

먼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만5,434명
에게 1인
당 평균 1
만5,370원
의 입학금
총 2억3,
700만원을
지·공·사
립 고등학
생 1~3학년 재학생 4만8,420명에
게 1인당 평균 110만5,000원의 수
업료 총 535억400만원을 각각 지
원한다.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공·사
립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1인
당 연평균 약 21만3,000원 총 103
억1,300만원이다.

또한 교과서비는 공·사립 고등
학교 1~3학년 재학생 4만9,247명
을 대상으로 정규 교과과정 교과
서 구입 실비를 1인당 1회(전학생
은 추가) 지원한다. 총 예산은 41
억8,600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
육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을 최소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연말연시 방역수칙 위반시설 6건 적발

전북도 점검 결과
2건 과태료 부과
4건 집합 금지명령

17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따라
수칙 이행상황 점검 등 실시

전북도는 4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
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11일동안 점검한 결
과 6건의 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
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시설 11개
읍중 총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했
다.

점검 결과 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태
를 적발해 2건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4건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
다.

과태료를 부과한 2건은 군산 소재
음식점으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
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아 적
발됐으며,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실시한 종교시설에는 집
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는 같은 기간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
처, 경찰청 등 정부 부처, 14개 시·군
이 69개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수
행, 현장점검의 어려운 점과 지역 방
역수칙 준수상황을 확인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
내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
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
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
저히 지켜 달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
여"를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1월 4일부터 17일까
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과 1회
위반 때부터 바로 처벌하는 '일스트라
이크 아웃'도 지속 시행한다는 방침
이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동물용 의약품 잔류물질 시험 분야 '국제공인기관' 인정

도 동물위생시험소, 지자체 기관 중 최초... '삼계탕 수입국' 유럽연합의 수입 허용조건이 뒷배경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산업통상
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인 산하 한국인
정기구(KOLAS, Korean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동물용 의
약품 잔류물질 시험 분야에서 '국제공
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았다.

지자체 축산물 검사기관(17개소)으
로는 최초이며, 인정유효기간은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0일(4
년)까지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은 국제표
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국제 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평가
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 검사 역량
이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
이다.

이런 공인시험기관 인정의 뒷배경에
는 한국산 삼계탕 수입국인 유럽연합
(EU)의 수입 허용조건이 있었다.

유럽연합(EU)은 한국산 삼계탕의 수
입 허용조건으로 잔류물질 검사기관
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요
구했다.

이에 전북도는 전국 삼계탕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업체의 수
출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준비했다.

이성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공인시험기관 인정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와 도내에서 생산된 삼계탕이 유
럽연합(EU)에 수출될 수 있도록 축산
식품 검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2021년엔 다시 활짝

모두가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더 큰 꿈을 꾸는
밝은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SAMSUNG